



[금융] 농협의 신남방금융 김광수 회장 메콩3국 순회경영 04



Economy

코스피	2195.44 (0.00)	코스닥	731.25 (0.00)
금리 (미국 3년)	1.81 (0.00)	환율 (원/달러)	1124.70 (0.00) (1일)

南北경협 호재 사라진 증시 실적 찬바람에 '우울한 3월'

3월 증시전망

경협株 시총 5.6조 증발 교보·대신 등 7개 증권사 코스피 고점 2300 전망 中 양회 등 변동성 높아 전문가 "조정장 대비해야"

(3월 코스피 예상밴드)

IBK투자증권	2140~2270
교보증권	2100~2300
대신증권	2100~2260
삼성증권	2100~2270
케이프투자증권	2190~2300
하나금융투자	2250~2300
한국투자증권	2150~2250

각사

2월 조업일수가 짧을 점을 고려하면 수출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1월 반도체 수출은 74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23.3% 감소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는 현재 약세장 구간에 있다"면서 "밸류 부담이 크진 않으나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오버킬(Over Kill·과매도)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1, 2월 증시 상승을 이끌던 남북경협 기대도 사그라들었다. 지난달 28일 북미 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 경협 관련주 주가가 급락했다. 총 130개 종목의 하락폭을 감안하면 시가총액 5조 6000억원이 몇 시간 만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북미 정상회담과 같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이슈가 부정적으로 끝나면서 외국인의 매도폭이 확대됐다"면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3월 주요 이벤트 결과 지켜보아야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북 주 흐름 ▲미중 무역협상 및 중국 양회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의 시각 변화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혹은 최소 상반기까지 추가 인상 유보를 내놓으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동안 추가 상승을 이끌었던 글로벌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어서다.

김효진 SK증권 연구원 역시 "북·미 협상 결렬, 중국 MSCI 편입 확대 등이 국내 증시를 주춤하게 하겠지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로 스탠스를 선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과 중국 양회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매년 3월 양회를 열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국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돼 왔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반도체는 주가의 방향성은 바닥을 확인 중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익 성장 레벨이 크게 낮아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중국 정책 기대감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을 위해선 정책의 강도와 향후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주식시장은 시장에 기대감을 줬던 주요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펀더멘털의 부진이 부각돼 차익실현 매물이 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며 "3월 시장은 주요 이벤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신학기 준비 분주

신학기를 앞둔 3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원거리에는 문구도매점이 신학기 용품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협뉴스

구본준, 등기이사직 사임 구광모의 LG "이젠 실적"

LG, 15일 정기주총 개최 구본준 부회장 물러나

LG 구광모 대표가 본격적으로 1인 경영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간 평가 결과로는 경영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 실용주의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월 재계에 따르면 LG 구본준 부회장은 오는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LG전자와 LG화학 등 기 이사직을 내려올 예정이다. LG스포츠 이사진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준 부회장은 구광모 대표의 삼촌이다.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LG 가풍에 따라 지난해 고(故) 구본무 회장 사망 후부터 경영에 손을 댄 상태다. 조만간 LG 부회장 등 경영직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빈 자리는 구광모 대표 측근들이 채운다. LG전자는 권영수 부회장, LG화학은 신학철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권영수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을 직접 보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원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수혈된 구광모호 1차 탑승자다.

재계에서는 LG가 구광모 대표 독자 경영 체제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구광모 대표 최측근인 권영수 부회장이 LG 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에서 하현희 부회장이 맡았던 기타비상무이사 자리까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영권을 더 집중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계열분리는 구광모 대표 체제의 최대 난제다. 구본준 부회장의 지분은 (주)LG 7.72%로, 1조원 수

준이다. 구본준 부회장이 성장시킨 분야는 LG전자 VC사업부와 LG이노텍, 그리고 LG 상사 등 전장 분야다. 구광모 대표는 지난해 (주)LG에 자동차부품팀을 만드는 등 성장동력으로 삼은 상황이어서 이들 계열사나 사업부를 분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광모 대표 경영 능력 증명도 주요 과제다. LG는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선대 회장 경영진을 대부분 유임하며 안정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정기주총까지 적지 않은 이사진을 교체했다. 앞으로 경영책임을 오롯이 구광모 대표가 맡게 될 셈이다.

지금까지 성적은 좋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4분기 LG전자는 영업이익 753억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신형시 장 부진 이유도 있었지만, 스마트폰 사업 등 MC사업부가 무려 3223억원 손실을 기록한 탓이었다.

MC사업부는 'MWC 19'에서도 빛을 내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스마트폰 사업자들이 폴더블폰을 내놓는 가운데 LG전자는 차세대 기기로 듀얼스크린을 지원하는 V50을 선보였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폰을 접지 말고 사업을 접어라'는 조롱까지 퍼부었을 정도다. MC 사업부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 실적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이 이어진다.

그 밖에 계열사들도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가 부진한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LG화학도 시장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김재욱 기자 juk@

'보육대란' 초읽기... 교육당국-한유총 '강대강'

한유총 "개학 연기 강행 사립유치원 1500곳 동참" 교육부 집계와 8배 차이나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새학기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유치원 대란이 우려된다. 교육부 조사 결과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최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유총은 폐원도 불사할 태세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나 폐원 등을 강행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를 합의하는 등 강대강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이 1학기 개원 일정을 연기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협뉴스

하는 준비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비투쟁을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

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그동안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해왔다면,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을 전제로 6일까지 회원 의견 수렴을 벌이고 이에 대한(폐원 여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한유총은 유치

원 1학기 개학을 앞두고 3월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에 반발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가 시도교육감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재차 밝혔고 2일에는 이날 연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강행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압박을 키워왔다.

개학 첫날인 4일 이후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될지도 주목된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중 190곳만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긴급돌봄 체제를 가동해 대응키로 했다.

(2면에 계속) /한유총 기자 hys@